

###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을 통한 이 공부를 계속키 위해 고린도전서 3장을 펴십시오. 2장 끝 부분에서 바울은 육에 속한 사람(자연인) 곧 중생하지 않은 사람, 세상적인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 아담의 성품을 가진 사람, 최악된 본성을 가지고 그 죄성에 의해 지배받는 사람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 육에 속한 사람에 관해 말합니다. 성령의 일이 저들에게는 사실상 미련한 것이며 또한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들은 아무런 영적인 이해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자, 곧 영적인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의 영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바울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이 영적인 생명 안으로 데려오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 영적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일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육에 속한 사람을 대조해 볼 때, 영적인 일들이 그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이해하나 자신은 육에 속한 사람(자연인)들에 의해 오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인과 거듭난 신령한 자를 대조하여 말한 후에, 이제 여기 3장에서는 육신에 속한 사람에 관해 말합니다.

*1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그것은 성령에 의해 지배되는 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신령한 자입니다. 나는 영적인 사람에게 하는 것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바울이 가졌던 어려움은, 그들에게 신령한 일들에 대해 쓰고 싶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단순하고 어린아이 같은 것들을 써야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공부하면서 이 서신은 근본적으로 바르게 교정하는 서신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모든 잘못들을 바르게 교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하나씩 그 교회에 있는 문제점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도 어린아이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지금쯤은 자라고, 개발되어 영적인 성숙이 있었어야 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사역을 시작한지 4년 후에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도 갓난아이의 영적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한다고 말했습니다.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 안에서의 구원은 믿지만, 아직도 그들의 육신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7장을 보면 바울이 그의 육신의 본성과의 싸움에 관한 대표적인 묘사를 보게 됩니다. 그는 자신 안에 있는 이 사악한 법,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그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말합니다. 그가 행하기를 원하는 선을 행할 수가 없고 또한 원치 않는 것들을 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은 7장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어 생명과 영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찬양과 감사를 드리게 하겠는가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는 육신적인 삶에서 나와서 성령이 지배하는 삶, 신령한 삶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싸움에 대해 말하기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려 싸우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려 싸우는, 이런 대적하는 힘이 믿는 자들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육신을 전혀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육신적인 삶의 특징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숙하지도 자라지도 않으며, 그들의 영적 삶도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어린아이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란 없으며, 그것은 틀린 명칭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2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들은 성장하지 못하고 발육되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너희들은 아직 영적으로 갓난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고, 도의 초보를 넘어서 더 이상 자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6장에서 저자는,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과 안수를 회개하고, 완전한데 나아가자고 말했습니다. 자라납시다. 발전합시다.

그런데 많은 경우 믿는 자들의 영적 미성숙은 목사들의 잘못에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 역시 나의 사역 초기에 사람들을 영적 미숙아로 머물게 했음을 인정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제목 별 설교를 했습니다. 그것들은 내가 좋아하는 주제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진정한 지속적인 영적 성장을 위한 것이 되지 못했습니다. 나는 종종 양들을 아주 책임하는 식으로 권고하는 나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양들을 매질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선한 일들을 하고 충성하도록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권고하기에 힘썼지만 그들이 실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영적 갓난아이 상태는 나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들이 거듭난 신자들로써 그리스도를 전도하지 못하고 또 주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일들을 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가혹하게 징계하면서 나는 그것을 그들에게 돌렸습니다. 채찍이 그들의 등을 내리칠 때 그들의 머리는 아래로 숙여졌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믿지 못할 정도로 그들에게 죄의식을 주었습니다. 불쌍하게도 내가 말한 것들은 실제로 사실이었고 그들도 그것을 알았기에 채찍이 내려올 때 그들의 머리를 아래로 떨어뜨리고 그 채찍을 감수했습니다. 그들은 마음속으로 하나님! 나는 실패자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나는 내가 패배자임을 압니다. 내가 그런 실패자임에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 전도자는 우리를 자라게 할 그런 양식을 주지 않습니다! 라고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 에베소의 장로들과 만났을 때, 그는 그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너희들에게 전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전체를 공부하기로 택했습니다. 왜냐면 내가 여러분에게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가르칠 때, 나는 내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너희에게 전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도 건너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심지어 몇 몇 계보도 읽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다 공부했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성장하게 합니다. 고린도교회의 비극은 바울이 그들을 강하게 하는 단단한 음식을 줄 수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밥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젖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너희가 지금도 받지 못하는 것은 3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오 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적인 사람의 특징은 우리가 교회에서 자주 보는 시기와 분쟁과 분열이며, 이러한 암종병이 교회를 잡아먹고 파괴시킵니다. 이러한 질투, 시기, 분쟁, 분열들은 육신적인 사람에게서부터 나옵니다. 이러한 것들이 육신적인 사람의 특징들이니 이러한 것들이 존재하는 한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겠는가?

4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신적)사람이 아니리오? 그들이 작은 그룹으로 나뉘기 시작하면서 이런 것들로 아마 교파주의가 시작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바울에게라, 다른 사람들은 아볼로에게라 하면서 나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리스도의 몸 안에 분열을 가져오는 데는 별로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시대를 통하여 분단되었습니다. 각 교단들은 그리스도의 의 분단을 나타냅니다. 그것은 비극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교파에 묶여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것이 유일한 참된 교파라고 느낍니다.

몇 년 전 내가 교단과 연관되어 있을 때, 그 교단의 감독이 우리가 말아 사역하려고 하는 한 교회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교회는 내가 그전에 목회했던 교회와 그리 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말하길, 그 교회의 사람들을 당신이 지금 사역하는 교회로 데려 가려고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려는 의향이 전혀 없음을 그에게 확신시켰습니다. 내가 목회할 때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교회를 벌써 떠났기 때문에 내가 사역하러 가는 교회로 아무도 데리고 가려는 의향은 전혀 없다고 나는 말했습니다. 그전에 주일학교 교장이었고 우리와 매우 친했던 부부도 지금은 나사렛교회에 다니지만, 심지어 그들마저도 데리고 오려고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사람들을 한 교단에서 다른 교단으로 옮기는 것으로 자라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발견하도록 인도할 때 자랍니다. 바로 그곳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몸이 자라는 곳입니다! 교회를 단순히 이용하려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역을 이용하려고도 합니다. 바울은 오직 복음이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만 전도하려고 결심했습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이 기초를 확립한 곳에 세우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고린도에 일어났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우리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우리는 아볼로에게라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하기를 그것은 육신적인 사람의 표라 했습니다. 이런 일은 자신들을 조그만 배타적인 그룹으로 쪼개는 일입니다.

바울은 질문하기를 5그러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단지 그들은 너희로 하여금 믿게한 일꾼들이니라. 그 일을 이루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6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리고는 바울이 계속 말하기를 7그러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 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 8심는 이와 물주는 이가 일반(하나)이라. 바울이 말하는 것은 아볼로와 나 사이에 분열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 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곳이 바로 우리의 헌신과 열심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며, 사람에게가 아니요, 사역도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만 헌신하고 전념해야 합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는 단지 도구일 뿐이며,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 에베소로 갔고, 아볼로는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에 교회를 세웠고, 거기에 교회를 심었습니다. 아볼로는 바울의 뒤를 따라 바울이 심었던 곳에 물을 주었습니다. 거기서 교회가 생겼고, 고린도교회는 성장하였습니다. 흥미로운 일은 아볼로는 에베소에 심었으며, 바울이 에베소에 왔을 때 그는 어떤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아볼로는 성경 말씀에 대단한 사람이었고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성경말씀을 매우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성경말씀으로 증거 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왔고, 거기 에베소에서 아볼로가 심은 것에 바울이 물을 주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곳에서는 우리를 심게 하시고 다른 곳에서는 이미 심어진 곳에 우리에게 물을 주게 하십니다.

많은 경우 여러분은 사람의 마음에 씨를 뿌립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하고, 당신은 저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삽니다. 씨는 심어졌습니다. 만일 당신이 옮기게 되든지 또는 저들이 옮겨서 다른 이를 만나 그들과 나누게 되어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럴 때 당신은 씨를 심었고, 다른 사람은 당신이 심은 것을 거둡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결산은,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물을 주고, 한 사람은 거두지만, 모두 상급을 나눌 것입니다.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입니다! 바울은 다시금 그가 아볼로와 하나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각각 자기의 일하는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9*우리는 (바울은 그 자신과 아볼로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우리는 다만 일꾼들입니다. 우리는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파를 만들려는 뜻이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는 단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를 따르는 자나 아볼로를 따르는 자들로 어떤 분열도 가질 뜻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십시오!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만 보십시오.

그는 말하기를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과수원, 또는 문자 그대로 같고 경작된 밭입니다. 그 밭은 하나님께 속해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와서 심었고 아볼로는 와서 그것에 물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분의 밭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니라.* 바울은 교회를 묘사하는데 이 두 가지 유사점을 사용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동산입니다. 흥미로운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인간과 교제했던 곳을 기억하십니까? 그곳은 동산이었습니다. 그분은 그 동산을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경작하고, 개발하고, 가꾸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아담과 교제하시곤 하셨습니다.

그분이 동산으로 비유한 것은 흥미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의 열매 맺는 과실에 대해 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하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가지는 열매를 맺으며, 그것을 경작하여 더 많은 열매 맺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동산의 의미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동산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은 과실을 즐기시기 위한 것입니다. 왜 당신은 동산에 심습니까? 그 이유는 동산의 열매를 즐기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동산, 바로 당신이 하나님의 동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동산에 오셔서 열매를 즐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 시대의 말기에 에베소 교회에 편지로 말씀하시길, 너희는 행위도 있고, 분별력도 있지만, 너희의 처음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다시 너희의 처음행위를 가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떠나리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그분께서 그분의 동산에서 사랑을 찾지 못한다면, 그분이 원하시는 열매를 찾지 못하신다면, 그분은 그곳에 머물고 싶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사랑이며, 그것은 희락으로 나타나고, 그 결과로 화평이 있고, 그 결과로 오래 참음과 인내와 온유와 양선을 열매 맺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동산에 오시면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10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헬라어로 건물을 짓는 건축가는 우리가 사용하는 말로 건물을 디자인하는 설계사에 근거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건축자입니다. *내가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우리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나는 와서 터를 닦았다는 것은 □나는 심었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리고 아볼로가 와서 내가 터를 닦은 곳에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그러면 그 집의 터(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며, 거기엔 오직 한 터(기초) 밖엔 없습니다. *11이 닦아 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 들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분이 교회의 터이십니다.

천주교(카톨릭교)는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매우 심각한 오류를 범했습니다. 그 베드로가 교회의 터(반석)라는 것을 마태복음 16장 (13-18절) 말씀에서 따온 것입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들은 예수님께 향간에 떠도는 여러 가지 설을 말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셨으므로 베드로가 세워진 교회의 반석이라고 합니다. 이 문맥에서 여기에 사용된 두 헬라어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너는 페트로스(petros)라고 합니다. 페트로스(petros)란 작은 조약돌이란 뜻입니다. 이 크고 단단한 페트라(Petra)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교회의 반석은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하여,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터(반석)입니다.

바울이 여기에 선언한 것처럼 이 닦아 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지혜로운 건축자라, 내가 터를 닦아 두었노라.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외에 다른 터는 없습니다.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터 위에 세우기를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터 위에 수년을 통하여 어떻게 지어졌는가는 참으로 흥미롭고 놀라운 것입니다.

*12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가치 있는 건축 재료들 - 금, 은, 보석들을 나무, 풀, 짚에 비교하면 영구적인 건축 재료들입니다.

크고 나쁜 늑대와 세 마리의 작은 돼지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그 한 마리는 짚으로, 다른 하나는 나무막대기로 집을 지었지만, 지혜로운 한 마리는 벽돌로 그의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크고 나쁜 늑대가 와서 들어가게 해 달라고 졸라댔습니다. 그러자 작은 돼지들은 용, 용, 죽겠지 놀려대며 집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늑대는 화를 내며 흑 불어 집을 날려버리겠다고 합니다. 그 늑대가 숨을 세차게 불어 짚과 나무막대기로 지은 집은 날려버렸지만 벽돌로 지은 집은 날려버릴 수가 없었다는 동화 이야기입니다.

터(반석) 위에 세우는 데는 여러 가지 건축 재료들이 있고, 그 터 위에 감정적이고, 광적인 빈약한 재료들로 세워진 여러 가지 종류의 구조들이 있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 오래 남지 못하는 일들을 봅니다. 그들이 단단한 터 위에 세워졌지만 값싼 재료들이었습니다. 모래가 너무 많았거나 시멘트가 충분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위기가 닥쳤을 때, 많은 일들이 사람의 인간성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곧 무너졌습니다. 그것들은 어떤 사람의 기념비를 위한 건물들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것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말하길, 너희들이 건축하는 재료의 종류에 따라, *13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 날이 주의 날입니다.)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14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15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어느 날 우리의 공력이 어떤 것인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한 동기에 따라 다른 것들과 함께 그 공력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과 박수갈채를 받기 위해 한 것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했는가? 나의 동기가 무엇이었는가? 그 근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6:1-4절) 예수께서는 너희 자신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는 일의 숨은 동기가 찬양과 영예와 사람의 영광을 받기 위한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만약 그것이 너희 동기라면 너희는 너희 상을 이미 받았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신 다음 예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드렸고 그것을 어떻게 드렸는가에 대한 동기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했으며 금식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런 일들을 하지 말며,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말하기를, 아! 그는 참 의로운 사람이야! 또는 아! 그는 참 거룩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을 듣기 위해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헛된 영광을 위하여 아무 것도 하지 마십시오.

내가 한 번 말한 적이 있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한 교회에 목사로 갔을 때, 그 강대상 앞에 아름다운 꽃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날 교회 임원 중 한 사람이 우리를 점심에 초대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목사님, 오늘 아침 예배 시간에 실수를 하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나는 아, 그래요? 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목사님께서 그 아름다운 꽃에 대해 감사의 표시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목사님께서 그 꽃이 매 주일마다 강대상 앞에 있기를 원하신다면 목사님께서 감사의 표현을 하셔야 합니다. 나는 말하기를, 당신들이 나를 당신들의 목사로 뽑았는데, 당신들이 누구를 뽑았는지 참으로 모르는군요. 나는 사람들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들이 하나님의 칭찬을 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빼앗고 싶지 않습니다. 그는, 내가 목사님에게 경고하지 않았다고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 주일날 그 아름다운 꽃은 그곳에 다시 있었습니다. 나는 역시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내가 본 마지막 꽃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결코 어떤 압력에 의해서라든가 어떤 강요에 의해서 하면 절대로 안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드리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만약 즐거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면 드리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것도 강제로나 강요에 의한 것이나 어떤 압력이나 싫지만 억지로 드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럴바에야 당신이 갖고 있는 것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상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잘못된 동기로 대부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풀이나 짚입니다. 그러한 공력이 불로 시험할 때 모두 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상급에 관한 한 하나님을 위하여 영원히 가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주의를 끌어 칭찬과 과찬과 존경하도록 하기위해 일을 하기 때문에 그들이 받을 상은 벌써 여러 번 다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공력은 하나님의 심판의 불로 다 타 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공력이 불로 시험될 그 심판의 날을 견디는, 즉 불에 타지 않는 공력이 있으면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 공력은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하는 동기로 행한 것들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고 말한 것처럼, 내 심령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권하는 사랑이 나를 조금 더 여분의 거리를 가게하고,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 주님을 위한 나의 큰 사랑이 나를 조금 더 일하게 합니다. 나는 그것을 희생으로 생각지도 않고 그렇게 보지도 않습니다. 나는 그것을 어려운 일로 보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러한 능력으로 주님을 섬기게 허락하신 것이 기쁨이요, 축복이요, 감격하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바울은 불을 견디는 공력들은 상을 받고, 사람의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를 받는다는 말은 상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은 선물로 받아야합니다. 당신이 구원을 얻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상급은 바른 동기로 하나님을 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신이 의롭게 행한 일의 결과입니다. 구원은 상급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이 구원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 영혼을 지옥에서 건져 주시고, 또 주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내가 있을 곳도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의 기막힌 사랑에 나는 놀랄

뿐입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하지 못할 어떤 일도 결코 없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나는 주님을 섬길 것이라는 찬양이 있는 데, 바로 그것이 열쇠입니다! 그것이 동기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공력이 되고 당신은 그것으로 인해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동기와 목적으로 일한 사람들과 그들 자신의 영광을 위한 모든 일들은 불에 타버릴 것이지만 그들은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구원은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쓸어버리지는 않으십니다. 다만 옳지 않은 동기로 행했던 일들은 다 지워버리실 것입니다.

바울은 *16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제 바울은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집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모르느냐?* 모든 하나님의 자녀, 모든 거듭난 신자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안에 거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께서 당신 안에 거하시고 계십니다. 바울은 묻기를 너희가 그것을 모르느냐? 고 했습니다.

6장에서도 바울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에(고린도전서 6:15-20) 그는 말하기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고 했습니다. 너희 몸이 예수님의 몸의 한 부분임을 모르느냐? 손, 발, 귀, 눈 등 너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룹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한 부분을 가지고 창기와 합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고 그는 외칩니다.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교의 행위를 통해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했습니다. 그러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입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인 것을 모르느냐? (바울은 우리 몸이 하나님의 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입니다.)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십니다.

*17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몸된 성전을 더럽히면. 어떤 요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지 어려운 구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담배 피우는 것을 정죄키 위해 성경을 사용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일관성을 가집시다. 초코렛 역시 건강에 좋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쓸데없는데 관여한다고 할 것입니다. 콜라도 우리에게 그리 좋지 않고 실제로 우리 건강에 좋지 않은 것이 많습니다. 일관성 있게 말한다면 모든 것이 다 나쁘다고 해야합니다. 바울이 6장에서 같은 문맥으로 설명하고 이야기 한 더럽힌다는 것은 간음, 음란,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더럽힌다고 말한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육체적인 면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윤리적인 면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몸을 순결하게

지켜야합니다. 우리는 우리 몸을 거룩하게 지켜야합니다. 우리는 거룩하지 않는 행위에 우리의 몸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18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바울은 이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스스로 지혜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창조주 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당신을 속이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 세상에는 세상적인 지혜로 지혜로운 자도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지혜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은 참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 어떤 면으로 미련한 자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항상 놀라는 것은 그들이 일단 하나님의 진리를 거절하면, 지혜로운 자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보고 놀랍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만약 당신이 박사 학위 등 학위를 가지고 있고,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면, 당신이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합니다. 그저 순전한 믿음과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은 세상의 지혜로는 미련한 것이지만 당신은 그것이 참된 지혜임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것은 죄로 인해 멸망으로 가는 인간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19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술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이 성경 구절은 욥기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이 한 말에 대한 엘리바스의 응답으로 욥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은 간교한(지혜로운) 자로 자기 꾀술에 빠지게 한다고 했습니다. 나에게 참으로 흥미로운 것은 구약 성경이 신약의 가르침을 위한 기초를 형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나오는 바울, 베드로, 요한 등등 이러한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도 완전했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이 필요 없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약 교회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구약을 모른다면 당신은 신약을 위한 기초가 없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신약 성경에 반복하여 인용한 것을 봅시다. 이 사람들은 성경에 대한 상당한 이해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도 바울은 욥기에서 엘리바스의 진술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가 인용했던 책들인, 욥기, 신명기, 시편 등 그 외의 모든 성경책들에 대한 지식이 상당했습니다.

또 흥미로운 것은 말라기와, 마태복음 또는 마가복음 중 먼저 기록된 책 사이에는 약 400년이나 되는 기간이 있는데 그때에 쓴 책으로 외경이라 부르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 400년의 기간 동안에 쓴 책들 중에는 역사에 관한 것과 사람들이 만든 이야기로 된 책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외경이라고 부릅니다. 그 책들이 카톨릭 성경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 기독교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것이 카톨릭교에서 영감으로 된 책으로 인정했다면 왜 우리 기독교 성경에는 포함되어있지 않는가요? 신약성경 전체에는 구약에 있는 성경 구절들이 끊임없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신약에는 구약에서 많은 인용을 하고 있지만 외경에서 따온 인용문은 없습니다. 만약 그것이 예수님과 제자들에 의해 영감된 것으로 인정되어졌다면 그들이 구약에서 인용하신 것처럼 외경에서도 인용하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말씀의 거룩한 경전으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신약 성경 기자들에 의해 인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Halley's Bible Pocket Handbook에 □신약과 구약 사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책은 조그마한 성경 주석으로 아주 귀한 진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말라기 다음에 외경에 대한 개요가 조금 쓰여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구약을 인정하는 것처럼 외경을 영감된 성경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를 말합니다. 그것을 읽으면 왜 카톨릭교는 우리가 갖고 있는 66권의 책보다 더 많은 책을 갖고 있는 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술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했습니다. *20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그것들은 헛된 것입니다.

*21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사람들은 찬사와 영광을 받기 위해 일들을 합니다. 바울은 말하길,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왜냐하면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자랑하지 말며 나는 바울에게라, 나는 아볼로에게라 혹은 누구에게라고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그들을 높이지도 마십시오. 그리고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물을 줍니다..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22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구약 성경의 말씀이든, 바울의 가르침이든, 바울의 것이나, 베드로의 것이나,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성경 말씀을 쓰도록 사람에게 영감을 주신 분 안에서 자랑하십시오.

만물은 너희 것임이라. *23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러므로 이런 육신에 속한 일과, 분열과, 사람을 따르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십시오!